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5)

홍성도 경영학 박사

목 차

제1장 서론	4.1.3 입주시설 및 지원장비 등 기반시설 부족
제1절 연구의 목적	4.1.4 기술, 경영, 정보 및 사업화 지원의 네트워크 취약성
제2절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4.1.5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재원 조달방법의 한계
12.1 창업보육센터의 정의	4.1.6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경영상인 부재
12.2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	4.1.7 국내 창업보육센터 성과의 연구 미흡
12.3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4.1.8 입주기업 선정과 졸업제도의 보완 필요
제2장 외국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4.1.9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정책 미흡
제1절 미국의 창업보육센터	4.1.10 대학위주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
2.1.1 발전과정	제2절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성공요인
2.1.2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4.2.1 OECD(1997)보고서
2.1.3 미국 창업보육센터의 특징	4.2.2 W. Smilor Raymond의 연구
2.1.4 실리콘밸리 내 창업기업의 성공요인	4.2.3 Lalkaka(1997)의 연구
제2절 일본의 창업보육센터	4.2.4 배종태(1998)의 연구
2.2.1 발전과정	제3절 창업보육센터의 효과적인 지원정책 방향
2.2.2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4.3.1 창업기업 육성관련 금융시장 등 인프라 구축
제3절 주요국의 창업보육센터	4.3.2 자금공급제도와 정책자금의 지원시스템 개선
2.3.1 영국의 창업보육센터	4.3.3 창업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순자산 확인제도
2.3.2 독일의 창업보육센터	4.3.4 사업성이 강한 기술에 기술개발비 지원
2.3.3 이스라엘의 창업보육센터	4.3.5 산업재산권 평가 시 사업성 평가와 기술담보제도
제3장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	4.3.6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자금지원 확대
제1절 창업보육센터의 발전과정	4.3.7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와 경영지원 확대
3.1.1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배경	4.3.8 파생형(Spin-Off) 창업의 활성화 유도
3.1.2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단계	4.3.9 창업자 보험 및 기업가 연금제도 마련
3.1.3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4.3.10 건전한 기업가 육성을 위한 제도 및 풍토 조성
제2절 지원기관별 창업보육센터의 현황	4.3.11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환경 벤치마킹
3.2.1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보육센터(BI)	4.3.12 정부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정책 조정
3.2.2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제4절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전략
3.2.3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4.4.1 창업보육센터 소장 및 관리자의 기능과 역할
3.2.4 S/W 창업보육센터	4.4.2 입주기업 선정 시 경영능력 및 시장성 중시 사업성 평가
3.2.5 KAIST의 신기술창업지원단	4.4.3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주요 지원제도
3.2.6 그 외 창업보육사업	4.4.4 졸업제도 효율화를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 차등화
제3절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태	4.4.5 대학의 창업교육과정의 확대 및 현장학습 연계강화
제4장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4.4.6 아웃소싱을 통한 경영지원 및 벤처기업과 성공한 벤처기업 과 연계
제1절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	4.4.7 창업보육센터의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재정확보
4.1.1 창업기업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제5장 맺는 말
4.1.2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비효율성	

<그디 이번호>

3.2.3.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산업자원부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1998년 29개 기관을 신기술창업보육 지원기관(TBI)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30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 중에 있다. 1997년 말까지 총 1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21개의 기업을 지원하였다.

1991년 국내 최초로 창업보육사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성격으로 생산 기술연구원 단독의 TI사업을 통해 역외지원방식으로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시제품개발 및 시범매출을 지원하였으나, 1994년에는 대학, 연구소가 참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신기술창업보육사업으로 확대하여 고급인력의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의 테크노파크가 본 사업을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술창업자의 선정, 관리, 평가 등 총괄 기획 및 관리업무의 대부분을 테크노파크가 담당하는 중앙집중형 지원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4년까지는 연간 47건의 신청건수에 불과했으나 95년부터는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에 사업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PC통신을 활용한 신청서 다운로드 서비스 실시, 벤처로드쇼 등의 창업강좌와 산업기술 대전 등 각종 전시회 참가홍보 등을 통해 홍보한 결과 95년엔 신청건수가 7배나 증가하는 등 확장, 정착 단계에 있다.

TBI사업의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창업보육사업과 창업연구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한다는 점이다. 창업보육사업은 여타의 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이 가능한 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자나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을 선정하여 신기술창업보육센터로 하여금 보육을 실시하거나 역외에서 보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창업 연구사업은 창업을 하기 전에 연구를 하는 단계로 아이디어만 있고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역은 자금지원으로 무담보, 무이자로 과제당 1.2억원 내외로 지원을 하며 2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사업장이나 장비지원, 기술, 경영, 정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하고 있다.

3.2.4. S/W 창업보육센터

정보통신부는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사업과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이 주관하는 대학 내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의 2가지 창업보육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는 소프트웨어에만 국한하여 있으며 전국의 우체국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국의 15개 창업지원센터가 운영중이며 165개 창업기업이 입주중이다.

3.2.5. KAIST의 신기술창업지원단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은 1994년 운영을 시작하여 1998년 11월 29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KAIST TBI는 대덕 연구단지과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산·학·연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KAIST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과학기술자에게 시제품 개발에서 창업,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선정·입주시켜 기술, 시설, 정보지원, 경영지원, 입주자간의 정보교류 등 제반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키 위한 창업보육사업이다.



3.2.6. 지방 자치단체의 창업보육센터

정부부처 외에도 서울시, 충청남도 등과 같은 지방 자치단체나 민간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며 올해 들어 (주) SK, (주) 동부한농화학 등 대기업이 창업보육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대학교와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하고 22개의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만 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경영 및 기술지원실이 조직되어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서울)의 창업보육센터는 다음과 같다.

1) 서울 창업보육센터

(Seoul Business Incubator : SBI)

SBI는 1995년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하고 서울대학교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산·학·관 협력형태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여기서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여건이 취약한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1년 이내의 신규창업자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주시켜 종합적인 경영·기술지원 및 자금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13~21평 규모의 입주사무실 26개를 비롯하여 공작기계 및 측정기기실, 자료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의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SBI입주대상은 사무 및 회계용 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을 영위하는 고부가가치 신기술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강동구청 창업보육센터

강동구청의 S/W 창업보육센터는 1997년 10월 개소하여, 현재 10개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이들 각 업체들은 10평 내외의 규모에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

료는 평당 1만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2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구청 공무원이 상주하여 업체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청과 협약체결로 기술 및 경영자문과 유관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3) 송파구청 창업보육센터

송파구청의 송파벤처타운은 총 면적 3,166m²에 30개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곳은 기존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창업희망자 등 입주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벤처기업의 기술·정보 등 상호 협조 체제를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잠실 역세권 임대료의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평당 월 22,015원)와 취득세·등록세 75%, 재산세·소득세·법인세 50% 등 세액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향후 방이동, 문정·장지지구에 첨단기술 및 벤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4) 관악구청 창업보육센터

관악구청의 벤처타운은 관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2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입주한 업체는 총 32개 업체로서 향후 벤처빌딩 내 기관, 학교, 단체와 연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3절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태

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청의 협조를 받아 2000년 4월 20일~6월 30일 기간동안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태조사 대상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이 1999년도까지 지정한 142개 창업보육센터 중 아직 보육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창업보육센터와 보육기업은 있으나 실험실 등을 활용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8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한 134개소이다.

① 조사대상 134개 창업보육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창업보육실 수는 2000년 6월 현재 2,448개(센터당 평균 18.3개)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보육실 면적은 5만 9,697평, 기업이 실제 입주 가능한 순수 보육실 면적은 3만 893평으로 전체 보육실 면적의 51.7%로 나타났다.

조창업보육센터당 평균 면적 및 순수 보육실 면적은 각각 446평, 231평으로 나타났으며, 입주기업이 활용하는 평균 보육실 규모는 14.7평으로 나타났다. 134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수는 2000년 6월 현재 2,101개(센터당 평균 15.7개)로 나타났으며, 보육센터의 입주율(전체 보육실 대비 입주기업 수)은 85.8%로 나타났다.

②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형태를 살펴보면, 기술개발 중인 기업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시판 22.9%, 시제품제작 15.6% 순으로 나타났다.

조한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중소기업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비창업기업 36.1%, 벤처기업 13.1% 순으로 나타났다.

조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기·전자(반도체 통신기기 포함)가 1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 환경·생물산업이 각각 9.3%와 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인터넷 관련 업종이 전체의 2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처

리 및 기타 컴퓨터응용 관련 서비스업(S/W포함)과 기타 서비스업이 각각 15.6%와 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창업보육센터 중 보육센터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는 80.5%로 나타났음에 비해, 전담인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센터도 1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4개 창업보육센터 중 4개의 보육센터를 제외한 130개 보육센터가 센터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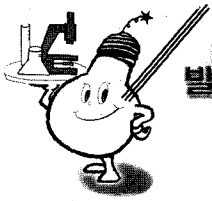
센터장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는 경영관리 능력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가적 능력(15.9%), 네트워크 능력(14.3%), 기업의 애로상담 능력(14.3%), 기술적 능력(10.3%), 자금조달 능력(6.0%), 협상 능력(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센터의 94.8%에 해당하는 127개 센터가 매니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7개 센터만이 매니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저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능력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업의 애로상담 능력(25.6%), 기술적 능력(11.3%), 네트워킹 능력(10.9%), 재무관리·회계 능력(8.0%), 기업가적 능력(5.9%), 협상 능력(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 창업보육센터의 재원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134개 창업보육센터의 89.6%가 중앙정부의 보조, 2.2%가 융자형태의 지원을 받는 등 90% 이상의 보육센터가 어떠한 형태로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대부분 보육센터의 건물 신축(증축 포함)이나 개축, 기자재 구입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자금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집행



(86.4%)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미집행(5.6%), 대부분 집행(3.2%) 등 중앙정부 지원자금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보육센터도 1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를 조달원천별로 살펴보면, 소속기관 지원금이 4,780만원(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주기업의 임대료 및 관리비 2,740만원(24.6%), 지방정부 지원금 2,490만원(22.8%), 중앙정부 지원금 590만원(5.3%) 등으로 나타났다.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 지출은,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1999년에 지정되어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개소한 것을 반영하듯 1999년에는 창업보육센터 설립에 필요한 기기 및 건물유지 보수비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0년에는 센터장·매니저 수당 및 출장·교통비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0년도 보육센터의 항목별 운영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센터장·매니저 수당 및 출장·교통비가 4,450만원(39.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2,280만원(20.4%), 각종 행사비 및 교육비 1,580만원(14.2%), 제세금 및 공과금 1,390만원(12.5%), 기기 및 건물유지 보수비 1,290만원(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⑤ 창업보육센터는 일반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체계적인 보육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육다터나 전문가 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 134개 창업보육센터의 96.3%인 129개 보육센터가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126개(94.0%)의 창업보육센터가 보육다터제나 전문가 풀 제도 중 하나를 운영하거나 두 제도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보육다터제나 전문가 풀의 활용도는 아직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도가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센터의 비중이 보육다터의

경우 67.2%, 전문가 풀의 경우 85.4%에 이른다.

⑥ 우리 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모든 보육자원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입주기업의 수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자원을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창업보육센터들이 외부기관과의 협약체결에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34개 보육센터 중 52개 보육센터가 1~5개 미만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업무협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고 있는 보육센터도 17개소나 되고 있다.

⑦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간은 대부분 24개월간의 기본 입주기간에 12개월을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총 36개월 동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134개 보육센터 전체의 최장 입주가능기간은 평균 32.0개월로 나타남. 이 중 일반창업보육센터(BI)는 평균 33.7개월인 반면, 인터넷창업보육센터(IBI)는 그보다 훨씬 짧은 25.3개월로 나타났다.

⑧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2000년도 예상매출액은 5,290억원(업체당 평균 2억 5,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종업원 수는 2000년 6월 말 현재 총 8,988(업체당 평균 4.3명)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9년도의 종업원 수 4,221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편, 2000년 6월 현재 창업보육센터의 졸업기업 수는 총 338개로 나타났다.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2000년도 매출액은 1,94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2000년 6월 현재 2,008명으로 나타났다.

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특허 보유 및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0년 6월말까지 총 970건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중 1999년도에

는 421건, 2000년도 1~6월 기간에는 549건으로 입주기업 수의 증가와 함께 특허 보유 및 출원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특허 보유 및 출원의 대부분이 일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소유로서 전체의 95.1%인 1,233건에 이르고 있고 입주기업의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건수는 1999년부터 2000년 6월말까지 493건을 기록하고 있다.[15]

제4장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1절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1998년 이후 급속한 양적 확충에 주력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창업보육센터의 양적 확충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부처간 정책조정 미흡,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물리적 시설 위주의 재정자금 지원,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창업보육센터 지정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4.1.1. 창업기업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우리 나라 창업보육센터의 3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현재의 창업업종 추이를 살펴본다면 이는 점점 더 심해지리라 본다. 현재의 창업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3월 현재 8대 도시(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의

업종별 창업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설법인이 4,605개로서 전년 동 월 대비 75.2% 증가하고 부도법인에 대한 신설법인의 비율은 24.4%로서 199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13]

〈표 4-1〉 우리나라 창업기업 현황 (단위: 개, 배)

구분	'99월평균	'99.3	'99.1-3	2000.3월	2000.1	2000.2	2000.1-3
신설법인수(A)	2,558	2,629	6,865	4,605	3,568	3,420	11,593
부도법인수(B)	207	259	675	189	254	217	660
배율(A/B)	12.4	10.2	10.2	24.4	14.0	15.8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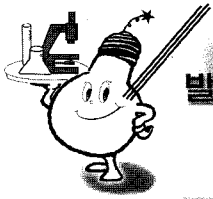
이들 중소기업의 창업동향을 업종별로 보면 1999년 8월이후 S/W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의 창업비중이 제조업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부문의 창업이 크게 증가하여 43.9%, 도·소매업 21.2%, 제조업 19.2%, 건설업 11.2%로 나타났으며 특히 S/W정보통신업의 경우 정보화추이에 따라 26.8%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2〉 업종별 신설법인수 비중의 변화추이

(단위: 개, %)

구분	1999	1999					2000		
		3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제조업	8,114 (27.1)	760 (29.5)	632 (26.0)	627 (23.0)	663 (25.2)	775 (25.0)	788 (22.1)	690 (20.2)	883 (19.2)
서비스업	8,028 (26.8)	613 (23.8)	705 (29.0)	767 (28.2)	812 (30.9)	911 (29.4)	1,213 (34.0)	1,344 (39.3)	2,021 (43.9)
s/w정보	2,668 (8.9)	178 (7.0)	257 (10.6)	283 (10.4)	294 (11.2)	430 (13.9)	626 (17.5)	727 (21.3)	1,233 (26.8)
통신업체	7,043 (23.5)	562 (21.9)	584 (24.0)	730 (26.8)	649 (24.7)	819 (26.4)	870 (24.4)	742 (21.7)	975 (21.2)
도매·	4,883 (16.3)	445 (17.3)	372 (15.3)	439 (16.1)	352 (13.4)	397 (12.8)	511 (14.3)	458 (13.4)	518 (11.2)
건설업	1,401 (4.7)	158 (6.2)	91 (3.7)	109 (4.0)	107 (4.1)	139 (4.5)	144 (4.0)	139 (4.1)	151 (3.3)
운수·	507 (1.6)	34 (1.3)	45 (1.9)	50 (1.8)	46 (1.7)	58 (1.9)	42 (1.2)	47 (1.4)	57 (1.2)
여행업	29,976 (100.0)	2,572 (100.0)	2,429 (100.0)	2,722 (100.0)	2,629 (100.0)	3,099 (100.0)	3,568 (100.0)	3,420 (100.0)	4,605 (100.0)
기타									
계									

* () 내는 비중%, 자료: 중소기업청(2000), 보도 자료



〈표 4-3〉 업종별 신설법인수 추이

(단위: 개, %)

구 분	99. 12		2000. 1		2000. 2		2000. 3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법인수	비중	
전기·전자	193	6.2	225	6.3	178	5.2	235	5.1	
기계·금속	174	5.6	142	4.0	131	3.8	204	4.4	
제조업	섬유제품	121	3.9	142	4.0	127	3.7	130	2.8
	생활용품	104	3.4	96	2.7	103	3.0	99	2.1
	화학제품	75	2.4	77	2.2	64	1.9	74	1.6
	인쇄·출판	49	1.6	51	1.4	49	1.4	66	1.4
	기타제조업	59	1.9	55	1.5	38	1.1	75	1.6
소 계	775	25.0	788	22.1	690	20.2	883	19.2	
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336	10.8	424	11.9	427	12.5	593	12.9
	S/W·정보통신업	430	13.9	626	17.5	727	21.3	1233	26.8
	임대 및 광고업	145	4.7	163	4.6	190	5.6	195	4.2
	소 계	911	29.4	1,213	34.0	1,344	39.3	2,021	43.9
도소매 및 자동차판매	도소매업(유통)	560	18.1	583	16.3	493	14.4	626	13.6
수리업	무역업	237	7.6	260	7.3	232	6.8	317	6.9
	자동차판매수리업	22	0.7	27	0.8	17	0.5	32	0.7
	소 계	819	26.4	870	24.4	742	21.7	975	21.2
건설업	건축, 토목, 설비, 전기공사 등	397	12.8	511	14.3	458	13.4	518	11.2
	운수·여행업	육상, 해상, 항공 운송관련업	139	4.5	144	4.0	139	4.1	151
숙박 및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	27	0.9	24	0.7	28	0.8	14	0.3
전기, 가스업	가스, 운수, 증기 공급업	1	0	8	0.2	9	0.3	9	0.2
	광업	석탄, 금속, 채석업 등	14	0.5	8	0.2	2	0.1	14
기타		16	0.5	2	0.1	8	0.2	20	0.4
계		3,099	100	3,568	100	3,420	100	4,605	100

※ 자료는 8대도시 기준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울산, 1999년은 울산을 제외한 7 대도시 실적임

이러한 비율은 현재의 창업 대부분이 기술 창업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창업의 경우 대부분이 저변이 탄탄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대전 등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외의 여타 지역과 창업의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자료(1998년)에 따르면 선정자의 85%가 수도권 및 대전에서 선정되었다. 이러한 창업 수요가 지속된다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특2001/10